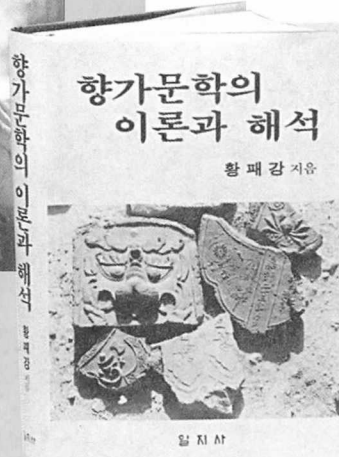


황패강 교수

일지사/A5신/684면/30,000원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향가 연구 100년사'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펴낸 황패강 교수



향가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말 노래다. 향가의 시문학적·언어학적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근대문학 출범 이후 향가 연구는 어학적 '해독'이 주류를 이뤘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 '향찰'이란 차자(借字) 체계를 먼저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1940년대에 나온 양주동의 《조선고가연구》(박문서관)는 향찰의 체계를 찾아내고 향가에 관한 독보적인 해독원리를 수립한 초창기 향가 연구의 '백미'다.

40년 향가연구 집대성한 역작

1960년대에 들어서 향가 연구는 초기의 일원론적 접근법 외에 민속·종교·역사·심리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분야의 시각이 도입되면서 백가쟁명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황패강 명예교수(73, 단국대 국문과)가 이 방면에 첫발을 디딘 것도 이 무렵이다. 스승의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처용가 연구>를 신호탄으로 그는 평생을 향가 연구에 매진해왔다. 이번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일지사)은 그의 40년 향가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이다.

“이번 책은 학창시절부터 40년 동안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죠. 한 우물만 판 결과를 책으로 펴낼 수 있다는 게 학자로서 참 다행한 일이고 행복합니다.”

이 책은 통론과 작품론으로 나뉜다. 통론에서

는 문헌자료를 대하는 자세부터 향가의 명칭, 유래, 형식론 등 논란이 많았던 원

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황교수는 학자들의 문헌해석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균여전》에 따르면 <사뇌가>는 '놀이'(戲)에서 비롯된 향가의 하위장르 명칭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뇌'를 '새내(東川)=향(鄉)'으로 해석한 양주동의 의견을 그대로 좇아 이를 무시했다. '삼구육명'(三句六名)은 정반대의 경우다. 《균여전》 서문에 나온 이 구절을, 학자들이 향가 전체의 형식론으로 세우려고 무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황교수는 그 원인을 향가를 바라보는 통론적 시각의 부재에서 찾는다.

“초기부터 향가연구를 어문학자들이 도맡아 보니 시각 자체가 협소해졌습니다. 균여의 <보현십원가> 같은 경우 '불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향가는 '생성'과 '종합'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적 정황, 설화, 창작계층, 작품의 정서적·미적 구조가 모두 고려돼야 하죠.”

양주동의 《조선고가연구》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특히 '사뇌(詞腦), 시뇌(詩腦), 사내(思內), 신열(辛熱)'을 모두 '시니'로 번역하는 음상유추 위주의 고증 방법과 개념의 무원칙한 확대를 문제삼았다. 형식에 대한 소박한 진화론적 이해, 일부 인증 용례의 부적절성도 밝혔다. 하지만 황교수는 《조선고가연구》가 보여주는 고증적 자세를 오늘날 학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는 당

향가의 문학사적 위치는 가히 독보적이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는 어학적 해독에 제한돼 있었다. 황패강 교수는 40년 향가연구를 집대성한 이 책에서 향가 연구사를 개관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황교수가 문제삼는 것은 관점과 방법론의 편협성, 문헌자료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다.

부를 잊지 않는다.

“우리 학문의 문제는 원본을 변형, 훼손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고전문학에는 작품의 원작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미학적으로 떨어지는 표현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대로 비워두는 게 진정한 학문의 자세인데, 요즘 학자들은 부족한 부분을 자꾸 '거짓'으로 채우고 미화하려 들죠.”

문헌자료에 대한 고증적 자세 필요해

황교수의 이런 태도는 <처용가> 해석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래를 부른 처용의 실체와 끝 구절 '가무이퇴'(歌舞而退) 부분의 해석이다. 황교수는 《삼국유사》에 나온 설화에 따라 처용을 불심이 깊은 동해용왕의 아들로 간주한다. 처용이 '역신'과 아내의 불륜을 목도하고도 물러난 것 또한 불교 수행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사심성취', 즉 버림으로써 득도하는 미학의 발현으로 본다. 설화에 나온 인상묘사에 근거해 처용을 '이슬람 상인'으로 파악, <처용가>를 '이객관대' 풍습의 반영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황교수가 볼 때 이들은 모두 자료와는 무관한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다.

“향가의 가창자는 시골노인(<회화가>)부터 부녀자(<천수대비가>), 왕(<서동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향가 연구는 당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선인들의 삶과 사상에 대한 '심정적 소통', 여기가 바로 향가 연구의 종결지가 아닐까 합니다.” - 강성민 기자